

## |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워크숍 |

# 디지털 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

손옥이 전문위원

지난 3. 8.(목) ~ 3. 9.(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코트디부아르에서 개최된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 및 워크숍에 참석했다.

\*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은 70여 개국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위원회들 간의 국제기구로, 우리 위원회는 '09년부터 이사로 활동 중

3월 8일 개최된 이사회회의 주제는 '인류의 미래에 디지털 혁명이 미치는 영향'으로, '18년도 총회 시 디지털 혁명 관련 보고서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한 회원국들 간 의사소통 및 업무 절차 향상, ILO와의 협력 사업 등 주요 운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AICESIS의 미래와 관련하여 노사정기구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대륙 내 노사정위원회의 활동과 정보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는 등 대륙별 사무부총장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18년도 AICESIS 총회는 9월 17~18일, 프랑스경제사회위원회(ESEC)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다음날 열린 디지털 혁명 워크숍 세션1에서는 '미래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에 디지털 혁명이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각국의 디지털 혁명 관련 미래 일자리에 대한 사전 대응책이 소개되었고, 세션2에서는 '디지털 혁명, 거버넌스,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을 주제로 ILO 등에서 발표하였다.



일자리 변화에 대한 각국의 노사정기구의 인식에 대한 ILO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제노사정기구연합 회원국 중 2/3는 관련 정책 및 사회적 대화의 역할 증대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을, 3/4는 일자리의 미래 관련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변화에 대한 각국의 노사정기구의 반응은 양극화를 나타냈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대화가 성공적이며 노사정기구가 건재한 경우, 일자리의 미래 관련 도전과제에 대한 관심은 더 높은 편이나, 반대의 경우 노동시장 현안(청년실업, 직업 안전 및 보건 등)에 더 중점을 두며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각국 노사정기구의 준비 단계는 상이하며 일자리의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 및 시기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므로 지역 및 국가별 노사정기구의 성공사례와 경험 공유를 통해 정책 대안 및 접근법을 벤치마킹하는 등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